

믿고 맡기되 맡긴 후에는 거론하지 말라!

21면에서 계속

다. 마음을 선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마음 쓰는 대로 내 오장 육부의 세포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처한 탓으로 '나는 죽겠다' 하는 생각을 한다면 바로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운행을 하면서 똑같이 '나도 죽겠다' 이러는 겁니다. 이걸 똑바로 아셔야 합니다.

이런 게 또 있죠. '삼살방이 들어서 나는 그리로 이사를 못 가겠다.'라고 한 사람은 못 가고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고 가기는 했는데 거기에 걸려서 바로 곱사라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삼살방이 어디에 있어? 사람이 터졌는데! 내 한마음이 일체제불의 마음이고 일체제불의 마음

없이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그건 미신이요 귀신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언제 깨달아 일체제불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일체 중생의 마음을 꿰뚫어볼 수 있어서 위로는 섬기고 아래로는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그렇게 귀중한 것을, 그렇게 보배인 것을 모르시고... 여러분 가정에 질병의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술을 먹고 이수리장을 만들고, 또 마음을 제각기 먹고 오해를 해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자식들하고도 화목하지 못하고 어른하고도 화목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 무슨 돈이 풍족하게 늘어 가겠습니까?

돈은 눈이 없고 생각이 없는 줄 아십니까? 다 생명이 있고 눈도 있고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쫓아가려고 애를 쓰면 달아나갑니다. 앞서서 쫓아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일체 만법의 그 능력을 쓸 수 있어야 하죠. 수레바퀴 굴러듯이 내 마음을 굴러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어서 앞으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조선시대 때에 절에서 기복을 쓴 것은 하도 스님네들을 탄압을 하고 불들어다 불기를 치고 그러니까 도저히 먹을 게 없어서 공부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칠성각이나 독성각이나 신중단이나 모두 해 놓고 거기도 놓고 저기도 놓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을 똑바로 아시고서 개선을 하셔야 합니다. 그랬는데 그전에는 대두 한 말들이 불기를 만들었던 겁니다. 불기가 넷. 다섯이 되니 한 몇 분만 정성을 들이고 가도 스님네들이 1년을 공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기복으로 해 놓은 것인데, 이 밝고 밝은 지금 세상에, 물질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시점에서 그런 것을 개선 못한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발전을 하며 앞서서 호국 불교를 논의하겠습니까? 지금은 앞서서 무역을 하고, 앞서서 저 소련이나 먼 나라의 소식을 듣고 있고, 앞서서 스위치만 누르면 미국으로도 그냥 소식을 주고받고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미처하게도 예전에 기복으로 하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렇게 행하고, 그런 고정관념을 가져서 자기를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있으니 그러한 습관을 좀 더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옛날이야기 좀 할까요? 옛날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되니까 부인을 넷을 얻었습니다. 이걸 비유해서 얘기하신 겁니다. 인제, 그래서 부인을 네 명을 얻었는데 자기가 죽게 됐

습니다. 다 죽게 돼서 인제는 숨이 넘어가게 생겼으니가 둘째 부인을 불렀습니다. 불려서 '여보 당신! 사계절을 통해서 당신을 더우면 얇은 옷을 입히고 추우면 두꺼운 옷을 입히고 맛있는 걸 먹이고, 모든 것을 당신이 해 달라는 대로 다 이렇게 해왔잖소? 그러나 내가 지금 죽어 가는데 당신은 안 따라가려오?' 하니깐 '나는 못 따라가겠소.' 하거든요. 셋째 부인을 불려서 불렀습니다. '내가 당신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 당신은 나를 그렇게 몰라준다 말시오. 그러나 내가 죽어 가는데 당신은 갈 수 있겠소?' 하고 물으니 '나도 갈 수 없소.' 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슬프니까?

그래서 넷째 부인을 불렀습니다. '당신을 내가 극진히 위하고 사랑하고 그랬는데 당신은 나를 쫓아가지 않으려오?' 하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 가시는 대로 모자나 화장터밖에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말입니다. 첫째 부인을 마저 불렀습니다. 불려서 하는 소리가 '당신을 내가 등한시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당신하고 평생토록 인연을 맺은 것만은 사실 아니냐? 그러나 내가 죽어 가는데 같이 갈 수 없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인이 말하기를 '당신이 못났든 잘났든, 많이 살았든 적게 살았든, 수억겁을 거치든 단생이든 당신을 쫓아가지 않고 누구를 쫓아갑니까?'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비유가 무슨 뜻이냐? 둘째 부인은 이 몸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더우면 더운 대로 지금도 부채질해 주고 계시죠? 얼마나 위험한가? 더우니까 부채질을 해 주고 얇은 옷을 입혀 주고, 땀이 나면 씻겨 주고 배가 고프면 먹여 주고, 입맛이 없으면 맛있는 거 먹여 주고, 이 몸을 위해서 마음이 얼마나 했습니까?

보십시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이며 자동적입니다. 마음이 '내가 해 준다' 하고 해 주는 게 아니라 자동적이며 스스로입니다. 이게 바로 묘법입니다. 보십시오! 더우니까 말없이 자동적으로 부채를 가지고 스스로 그냥그냥 이렇게 손이 놀러지죠? 부채가 뭐 '내가 부채 준다' 그리고 부치나요? 내가 '부채질 해야겠다' 그리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우니까 그대로 자동적으로 부채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 해도 말입니다. '아! 너희들이 햇빛을 가려 놓으니까 내가 못 비춰 주지, 풍구멍이든 어디든 막론하고 너희가 지붕만 없게 해 놓는다면, 벽만 없게 해 놓는다면 다 들어갈 테니까 너희 맘대로 해라.' 그런 거거든요. 저 태양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양이 '내 햇빛을 너는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합니까? 그런데 그 태양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거든요. 마음의 태양! 마음의 등불! 그 등불은 끊어짐이 없이 지금 켜져 있는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지금 그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만남이 몸뚱이를 가지고 내가 찢지, 내가 받았지, 내가 살지, 내가 아프지, 내가... 만날 '나, 나, 나' 하나씩 이놈의 잡재의식 카세트에 그냥 얹히고살려서 감겨 가지고 각본대로 나오죠! 영화배우들처럼 도끼비장난처럼 그냥 각본대로, 나오는 대로 나오니까 여러분이 한탄을 하기를 '아휴, 내 팔자야! 나는 이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했지만 어찌 팔자 운명이 이렇게 가혹한가.' 하고선 한탄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여러분이 과거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과거도 없는 것입니다. 왜? 오늘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작년 콩씨를 울봄에 심었더니만 콩나무로 화하고 콩나무에서 콩이 열렸습니까. 그랬으니 그 작년 콩씨가 작년 콩씨대로 따로 있고 울 콩씨대로 따로 있고 울 콩나무가 따로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인생이 태어난다면 그대로 화두요 내 몸 나온 것이 화두요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에요. 생활이 그냥 참선이니가 숨 들이쉬고 내쉬는 게 그대로 참선이요, 그대로 한 치도 일본일초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시공이 없는 이 진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이라고 한 그 뜻은 무엇이냐? 재물입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참 귀난히,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자기 병드는 줄 모르고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죽어 갈 때는 아예 한 푼도 개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개쌍겠습니까? 돈더러 그렇게 몰랐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죽어 갈 때 자기 몸더러 말을 했고 자기 재물더러 말을 했더니, 재물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를 바로 죽을 때에야 알았다 이 소립니다. 인제, 그걸 비유한 겁니다.

네 번째 부인인 권속을 비유하는 겁니다. 부인이나 남편, 자식들입니다. 자식들을 애지중지 그렇게 길렀건만, 맛있는 거는 먹고 맛있는 거는 대신 먹어 가면서, 찢은 자리는 마른 자리로 갈아 주면서 길렀더니 죽어 갈 때에 '묘지밖에는 못 가고 화장터밖에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거든요. 자기 혼자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 애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안 그런가? 화장터밖에는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라고 했지만 내내 기껏해야 종노릇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햇빛을 준 거라고도 하겠지만 묵은 빛을 감지 못했던 햇빛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뜻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실로써 한생각을 했다면 자기가 먹는 밥 한 그릇을 가지고도 천도를 시킬 수 있다

는 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피뎀을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서, 또 빚을 얻어서라도 천도를 시켜야면이 팔되는 줄 아는데, 천만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조상이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고 그렇게 돌아간 분들은 한이 되니까 자식 된 도리로 다소는 이렇게 차려 놓아야 되겠지만... 보십시오. 아파도 조상의 탓, 잘못돼도 조상의 탓을 하고 아님입니다. 그래, 자식 잘못되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죽어서나 살아서나 말입니다.

그런데 살아 있을 때 부모가 지계권이었던 돈을 못 버니까 자식을 공부 못 시켰지, 부모의 마음이 모자라서 못 시킨 게 아니거든요. 가난해서 못 시켰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허허하... '출세하라. 회전의자에 앉으려면 출세하라.' 이랬죠? 그런

“
여러분이 앓고 있는 질병도
바로 주인공에
진실하게 믿고 맡길 수만 있다면
나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믿고 나간다면
어떤 것이든
아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만가지의 꽃이 피고
만가지 향내가 나고
만가지 열매가 맺혀서
무르익어
만가지 맛을 낼 수가 있는
신비하고도 도도한
이것이
바로 공덕법행입니다!”

이 내 한마음인데 어찌 삼살방이 불을 자리가 있겠는가" 하고 그쪽으로 똑같이 갔는데 더 잘됐더랍니다. 그러나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이 차이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질겁을 하고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할 게 뭐 있습니까? 한 번 죽기는 마찬가지로, 네?

여러분의 몸뚱이를 영원히 두겠습니까? 옷과 같은 겁니다. 옷이 헐었으면 벗어 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옷이 헐어서 벗어 버릴 거를 알면서도 그 옷이 벗어 버릴까 봐 무서워서 발발발발 떨고선 그렇게 노예가 된다면 그건 바로 미신이요 귀신인 것입니다. 사람이 미신 노릇을 안 한다면 선신이고, 사람이 미신 노릇을 한다면 미신인 것입니다. 죽어서도 세세생생에 끊임

속담의 말이 있듯이 이 도리를 알면 내가 스스로 두루 월력이 있고 두루 자비가 생기고, 두루 아니 봐 주는 데가 없고 두루 물리가 터져서 일체 삼천대천세계 그 법계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가고 흠이 없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도리를 공부한다면 여러분한테도 그대로 에너지가 풍부하게, 서로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88년 8월 22일 제주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불교대학원 남·여 <승려 교육생 모집>

기본 과정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 법, 도량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대비식 등
범음, 범패, 작법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불교학 개론	대승불교, 초기불교, 화엄사상, 반야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선사상, 밀교사상, 유식사상,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초발심자경문

※ 불교학을 알아야 법문(설법)을 잘한다. 교육하면서 지도자적 발생 지도한다.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901-212404 (예금주: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 ◆ 모집인원 : 30명
- ◆ 원서접수 : 수시접수 ◆ 개강일시 : 2007년 9월 15일 오전 9시
- ◆ 제출서류 : ◆ 입학원서 - 1통 ◆ 주민등록등본 - 1통 ◆ 반명함판사진 - 3매
- ◆ 중앙불교대학원 교수진
 - 회암스님 · 前대안불교조계종 금강산 건봉사 주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 연구학 출신, 철학박사
 - 마정스님 · 종단진흥회 부회장 겸 임제선학원 원장, 철학박사
 - 혜성스님 · 바라법때 전수사, 구화종 총무원장
 - * 기타 필요강사 초빙 강의
- ※ 본원은 초종파 교육과정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어렵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 특전사항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 단 숙식 거주자만 점수함(한달숙박비 50만원)(지도장료의는 무료임)

◆ 문의 : 본대학 사무국 : 전화 031)676-0908 / 팩스 031)675-0206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

(공) 대한불교 종단진흥총연합회 부설 중앙불교대학원

